

市·道, 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예고...행정통합 순항

통합제정 512건·폐지 179건 의견 수렴 안정적 행정·중단 없는 서비스에 만전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전남도가 13일부터 통합 자치법규안을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주민이 이용하는 각종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두 시·도는 입법예고 기간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대상은 출범일 우선 정비 대상 자치법규다. 양 시·도의 현행 자치법규 중 82건을 통합해 512건의 통합특별시 자치법규로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한다.

앞서 양 시·도는 지난 6일 통합 자치법규안 합동심의를 열고 현행 자치법규 2천433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위임조례 제정 사항을 검토해 출범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폐지·단계적 정비 대상으로 구분했다.



전은옥 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이 12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통합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효석 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이 12일 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정비 추진경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통합 제정안에는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자치법규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대민 행정서비스 관련 자치법규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금고 운영, 민원 처리, 제증명 수수료 등이다.

미래산업, 농업·해양, 도시철도 등 광주·전남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자치법규와 규제자유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등 특별법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안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춰 정비한다.

폐지 대상은 통합 자치법규로 대체되거나 상위법령이나 지침으로 운영 가능한 경우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법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특히 농어민공익수당,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통합 이후 기존 조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지원 기준, 재정 부담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새로운 통합 조례·규칙 제정 전까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 등 경과규정에 따라 통합 자치법규가 마련되기 전까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해 계속 적용한다.

또한 현행·예규 등 행정규칙도 별도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기준과 절차가 유지되도록 할 계

획이다. 이를 통해 통합 이후 단계적으로 정비되는 자치법규도 기존 행정서비스와 대민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전은옥 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자치법규 정비는 단순한 조례의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근간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효석 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자치법규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단계적으로 정비해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통합특별시의회 사전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통합특별시 출범일에 맞춰 자치법규가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이재명 정부 성공·통합특별시 완수 백의종군”

김영록 “민주당과 끝까지 함께할 것” 강조 “무소속 출마 전복 사례 바람직하지 않아”

김영록 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수를 위해 민주당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을 어느 누구보다 응원하며 건전한 비판을 통해 더욱 더 강한 정당으로 성장·발전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전복의 사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분열보다 단결이 우선돼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후보는 “언제 어디서나 끝까지 민주당과 함께 하겠다”며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전 후보는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전남광주의 미래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전남광주에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현실이 되고 대한민국 남북권의 새로운 성장축이 조성될 수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록 전남지사 12일 전남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통합특별시 완수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독자 제공 >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전남광주는 전국 최초 통합특별시로 새롭게 출발한다”며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이룰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제1호 통합특별시가 지방소멸 극복

의 모델이 되도록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김 전 후보는 “통합 초기 여러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조기 안착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전남지사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남광주통합’ 첫 제안자로서 통합특별시 성공과 발전을 위해 함께 뛰겠다. 통합 과정에서 전남이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시원 기자

‘전남 유망 중소기업’ 18일까지 모집

전남도는 12일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2026년 전남도 유망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망 중소기업 지정 제도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최근 매출액 20억원 이상을 기록한 중소기업이다.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기업 선정은 재무 건전성, 기술 경쟁력, 성장 가능성, 고용 창출 성과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양시원 기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

1심보다 2년 늘어...대부분 혐의 유죄

12·3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중요임무중사, 위증등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

다. 1심의 징역 7년 형보다 2년 늘어났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2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중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능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 임무 중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1면 ‘후보 공약 비교’에서 계속

기술 기반 벤처기업 투자를 의무화해 창업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 전력 판매공사 공약에서는 RE100 산업 강화와 중소기업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미래변영 전략은 R E100 반도체·디지털 AI 산업 유치,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남 동부·서부 분산 배치, 중소벤처 창업 지원금 10조원 조성 10만 미래인재 양성, 전남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대응, 광주 80만대 미래차 생태계 구축 등이다.

전남광주 산업 지도 대전환을 위한 일자리특별시 10대 공약에는 세계적 규모의 ‘첨단 반도체 생산단지’ 구축,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남 이전, 연간 80만대 규모의 ‘친환경 미래자동차 생태계’ 완성, 광산·함평 ‘미래모빌리티 클러스

터’ 조성 등을 담았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노동분야와 지역 경제 공약을 중심으로 공공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 후보는 돌봄·보건·복지·안전·환경·교통 등 공공부문 일자리에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을 보장하고 지방정부와 노조 간 노정교섭을 정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정책 전남 기구인 ‘노동국’ 설치, 상시 지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공무직 임금 차별 해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제시하는 한편, ‘노동국’ 산하에 ‘노란봉투법 지원단’을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지역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재투자조례’ 제정과 ‘특별시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역의 유출을 방지하고 ‘특별시투자자사’ 설립으로 농수산 산업과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시세반값 초급매 물건들입니다]

- 유동로타리 35미터대로변코너 꼬마빌딩/상속분 땡처리 주차4대/매2억5,900(미니커피,제과,꽃집,선물코너최적)
- 유동 모텔5층건물 룠20개주차4 급매3억2,000(사무실용도최적)
- 송정동 역출구150미터 초역세권 상업지 2차선전 대106평 평당300총가3억1,800(구옥있음)식당,사육,다가구용최적
- 광주역대로변 광장코너 다이아몬드 땅93평 급매11억
- 매곡동 대단지 아파트 입구대로변 코너 대311평 급매평당650
- 북동 대로변코너 횡단보도앞 상업지대188평 5층빌딩 감정가35억 급처분가 29억/재개발입주권3개는 덤입니다

[교환]
상가모텔주택방 교환합시다(웃돈도 줍니다)
###연락주세요/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인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